

Research Center

한투의 아침

■ Today's Focus

위안화 강세전환 가능성 점검

■ 기업/산업분석

여행업, 제약·바이오

■ 경제/투자전략/글로벌자산관리

글로벌기업 실적 Review: NVIDIA

■ 전일 시장 특징주 및 테마

■ KIS 투자유망종목

단기 유망종목: 와이솔 외 5개 종목

중장기 유망종목: 삼양패키징 외 5개 종목

■ 국내외 금융시장 및 수급 동향



투 자 전 략 | 박소연
해 외 주 식 | 백찬규
해 외 채 권 | 안재균

시 황 분 석 | 김대준
신흥국·원자재 | 서태종
경 제 분 석 | 박정우

계 량 분 석 | 안 혁
중 국 시 장 | 최설화
채 권 분 석 | 오창섭

스몰캡전략 | 정훈석
베트남시장 | 이소연
크레딧분석 | 김기명

유동성분석 | 송승연
글로벌 ETF | 배호진

자산배분전략 | 정현종
글로벌기업 | 정희석

위안화 강세전환 가능성 점검

위안화의 추가 약세 가능성에 시장은 주목

신흥국 자금흐름 안정화 등을 고려했을 때 강세전환 가능성이 높을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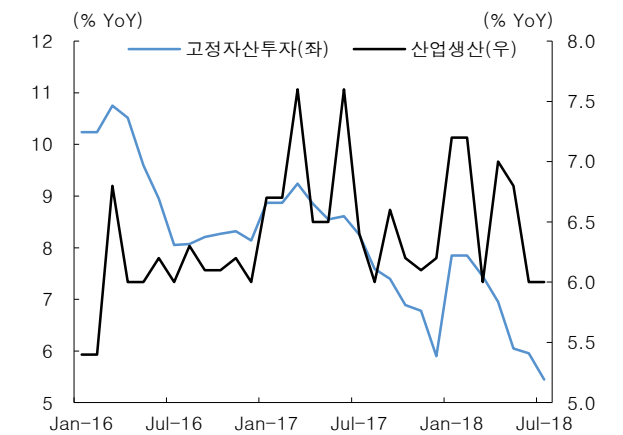
외환시장 변동성은 단기적으로 확대되겠으나 연말 6.6위안 수준까지 도달 전망

1. 가시화되는 중국의 성장 모멘텀 둔화

지난주 발표된 7월 중국 실물지표가 대체로 시장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미국과의 무역분쟁에 대한 여파가 실물경기로 전이되고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중국 국가통계국의 발표에 따르면 올해 1~7월 고정자산투자는 전년 대비 5.5% 증가에 그치며 시장 예상치 7.0%를 크게 하회했다. 이는 통계발표 이래 최저수준으로 7, 8월 비수기라는 계절적 요인을 고려하더라도 크게 우려되는 수준이다. 7월 소매판매 역시 자동차를 포함한 소비재 수입관세 인하 기대감을 반영하지 못하며 전년 대비 8.8% 증가하는데 그쳤다. 산업생산도 전년 대비 6.0% 증가하며 시장 예상치를 크게 하회했다[그림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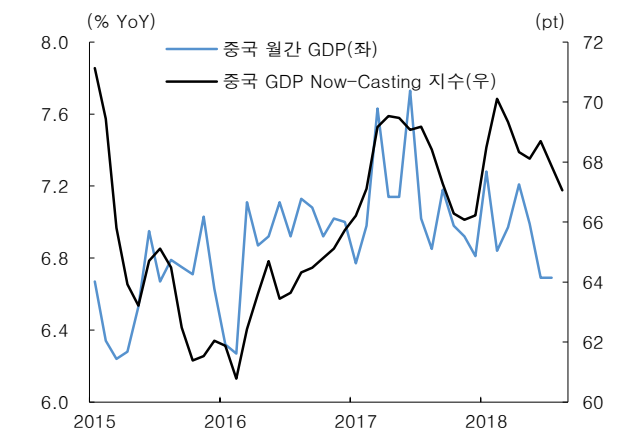
이 같은 지표 악화에 대해 중국 정부는 일시적 현상이며 하반기 각종 부양책과 인프라 건설이 경기 둔화를 제한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미국과의 무역분쟁이 장기화되면서 중국 내 불안감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중국 월간 GDP와 GDP Now-Casting은 최근 하락 일변도를 보이고 있다[그림 2]. 연초 70.1pt까지 상승한 GDP Now-Casting은 8월 67.1pt까지 하락했으며 중국 Citi 서프라이즈 인덱스도 6월부터 마이너스 영역에 머무르고 있다. 이러한 중국 경제의 하드랜딩 우려로 중국을 포함한 신흥국 자금 유출 압력과 함께 통화 절하가 빠르게 나타났다. 특히 여타 신흥국 통화 대비 위안화의 급격한 약세 흐름은 중국 통화당국이 시장개입을 최소화하며 그 속도가 더욱 가팔라진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1] 중국 고정자산투자 및 산업생산 증가율 추이



자료: Wind, 한국투자증권

[그림 2] 중국 월간 GDP 및 GDP Now-Casting 추이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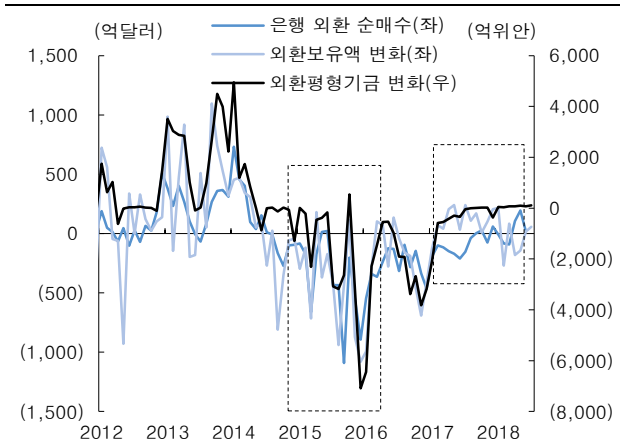
2. 중국 통화당국의 스탠스 변화, 외환 개입 최소화

2015년 8월 중국의 기습적인 위안화 절하 공시 이후, 2016년 초까지 이어진 금융시장 불안을 현재와 비교하는 시각이 많다. 그러나 이번 위안화 절하와 지난 2015년과는 인민은행을 비롯한 외환당국의 분명한 입장차이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가장 큰 차이점은 중국 외환당국이 인위적인 개입을 최소화하고 시장 수급에 따른 환율변동을 용인했다는 점에 있다.

통상 인민은행의 외환시장 개입은 외환평형기금과 외환보유액을 통해 외화 매입 혹은 매도해 왔고 이를 통해 안정적인 환율 변동성을 유지했다. 그러나 2015년과 달리 최근 외환평형기금과 외환보유액 증감액은 매우 미비한 수준에 그치고 있어 외환시장 개입이 최소한에 국한되어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은행의 외환 매수/매도 역시 외환당국의 주요 시장개입 수단 중 하나인데 이 또한 최근 제한적인 변동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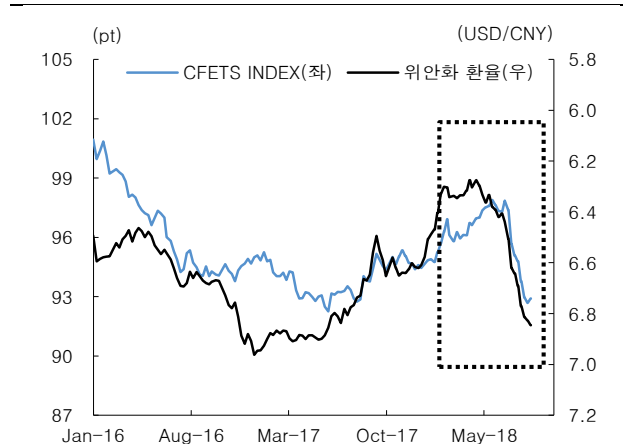
이러한 제한된 외환당국의 시장 개입은 위안화 바스켓 지수의 최근 추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인민은행은 지난 2015년 12월 주요통화로 구성된 바스켓 환율을 도입하며 향후 이러한 바스켓 환율을 통해 외환시장을 모니터링 할 것이라는 점을 예고한 바 있다. 그러나 실제 위안화 바스켓 환율이 도입된 이후 2017년 상반기까지 위안화 환율과는 괴리가 존재했다. 이후 2017년 4분기부터 동조화가 시작됐고 최근에는 위안화 바스켓과 위안화 환율은 동일한 방향성을 가리키는 모습이다. 위안화 바스켓이 중국의 무역 가중치를 기반으로 구성됐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실제 중국 위안화 환율이 수급 요인에 의해 결정되고 있으며 이러한 부분은 정부가 용인하고 있다는 점을 반증하고 있다.

[그림 3] 외환 평형기금, 외환보유액, 은행 외화 순매수 추이



자료: Wind, 한국투자증권

[그림 4] 위안화 바스켓 지수와 위안화 환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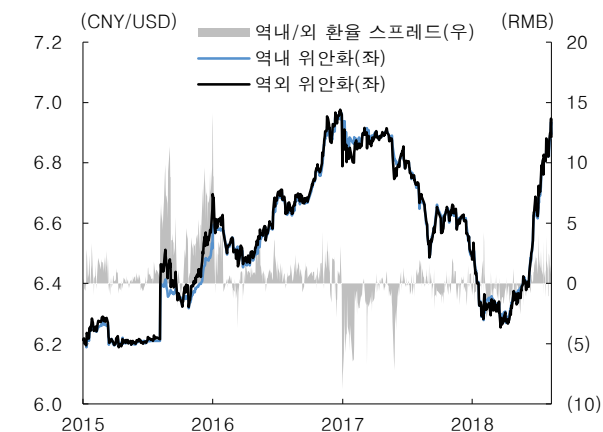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그 밖에 역내/외 환율 스프레드가 최근 들어 확대되는 모습이었지만, 그 레벨이 2015년과 비교해서 크게 낮은 수준에 그치고 있다. 외환관리국에서 선물환 거래 증거금을 기존 0%에서 20%로 상향 조정하며 공매도 투기세력을 방어하는 조치를 취했지만, 실제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었다는 점 역시 과거와 다른 부분이다. 이번 선물환 증거금 상향조정을 통한 규제 대상이 과거 역외시장의 외국인에서 중국 내 기업들(중국 기업들의 환헤지 목적으로 달러화 순매수 포지션 증가)로 바뀐 점 역시 비교되는 부분이다[그림 6]. 과거 학습효과를 통해 인위적인 개입을 통해 환율 방어를 하기보다, 지금의 중국 경제구조에서는 금융시장 개방을 더 확대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점을 중국이 자각한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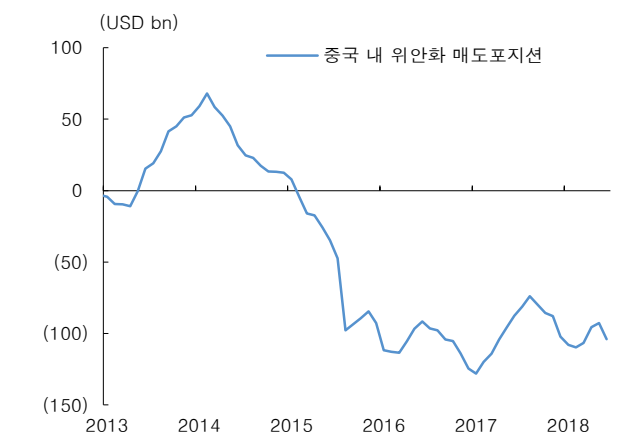
일각에서는 인민은행의 위안화 절하 용인을 두고 미-중 무역분쟁에 따른 수출 경쟁력 약화를 환율로 상쇄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통화절하에 따른 외국인 자금 이탈과 자산가격 하락의 그에 따른 충격파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다는 점에서 이는 신뢰성이 다소 떨어진다. 따라서 이번 위안화를 포함한 신흥국 통화의 약세는 미국 경기의 나홀로 강세 흐름에서 주요국과의 경기 디커플링이 발생했고 통화정책의 방향성마저 엇갈리며 나타난 달러화 강세에 기인했다는 판단이다.

[그림 5] 역내/외 위안화 환율 및 스프레드 추이



자료: Wind, 한국투자증권

[그림 6] 중국 내 위안화 매도포지션 추이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3. 위안화의 급격한 추가 약세는 제한적, 강세 요인에 주목

6월 이후 가파른 약세를 보인 위안화의 추가 약세 가능성에 시장은 우려를 표하고 있다. 특히 아직까지 미국과 주요국 경기간에 온도차가 유지되며 다소간의 부침이 이어질 전망이다. 그러나 1) 신흥국 자금흐름 안정화와 KIS 머니맵 확산지수의 반등, 2) 중국 정부의 경기 부양책 3) 중장기적 위안화 강세 요인 등을 고려했을 때, 약세보다는 강세전환 가능성에 좀더 무게감이 실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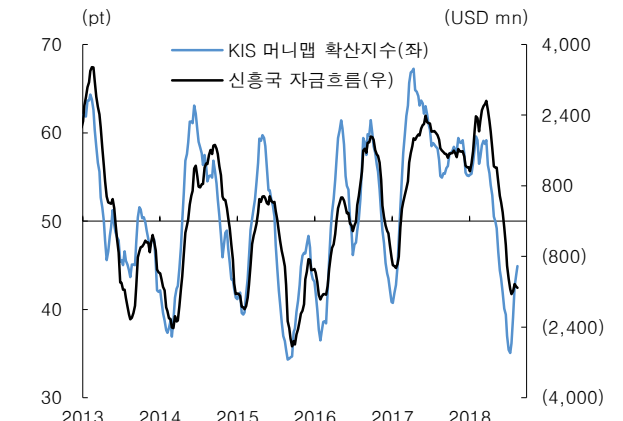
먼저, 6월 이후 급격하게 하락했던 12개월 Forward 위안화 선물환 포인트가 반등에 성공했다[그림 7]. 위안화의 약세 기대감이 크게 낮아졌다는 점에서 시장에서 우려하는 위안화의 급격한 추가 약세는 제한적일 전망이다. 특히 우리가 신흥국 자금흐름을 통해 발표한 KIS 머니맵 확산지수가 4주 연속 반등세가 확인되고 있다[그림 8]. 아직 기준점 50을 하회하는 수준이라는 점에서 자금의 순수입 전환과 함께 외환시장이 안정화 국면에 진입했다는 판단은 다소 이르다. 그러나 신흥국 자금 유출이 점정을 지나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 특히 9월 MSCI 2차 편입을 앞두고 중국 증시로 외국인 자금의 유입 가능성도 높아 중국을 포함한 신흥국의 자금흐름이 안정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림 7] 위안화 12개월 FWD 선물환 포인트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그림 8] 신흥국 자금 흐름 및 KIS 머니맵 확산지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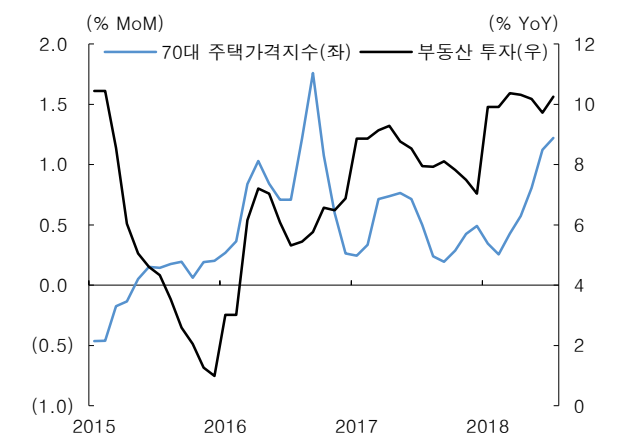
자료: EPFR,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또한 인민은행의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와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 인프라 투자 확대, 부동산 시장의 견조한 흐름 역시 경기 모멘텀을 지지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미 세 차례 기준을 인하를 통해 시중 유동성 공급을 확대한 인민은행의 하반기 추가 기준을 인하 가능성이 높을 전망이다. 특히 주택가격의 안정적인 상승세와 꾸준한 부동산 개발 투자 흐름이 이어지는 가운데 위안화 신규대출도 확대되고 있어 하반기 중국 경기는 점진적으로 둔화되는 흐름 속에서 속도조절이 나타날 것으로 판단된다[그림 9]. 이러한 경기 하방 경직성을 높이는 정부의 움직임은 통해 중국을 포함한 신흥국 경기의 낮아진 눈높이의 상향조정이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중장기적으로 구조적인 위안화의 강세 가능성이 높을 전망이다. 2분기 중국 경상수지가 1분기 적자에서 흑자전환에 성공했지만, 향후 경상수지의 지속적인 흑자폭 확대는 제한적일 전망이다[그림 10]. 미국과의 무역분쟁으로 상품수지의 뚜렷한 반등을 기대하기 제한적인 상황에서 서비스수지의 적자폭 역시 확대되는 흐름이 지속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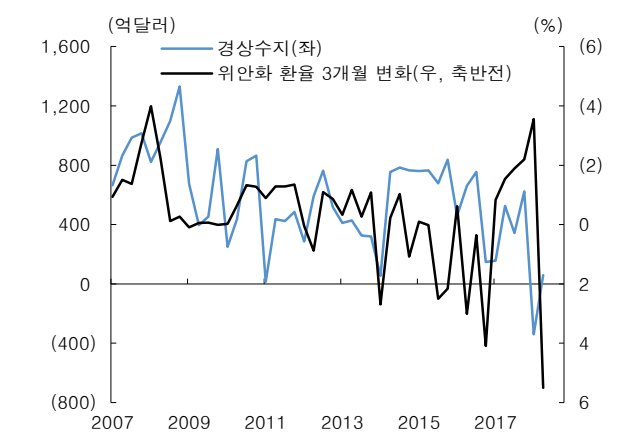
따라서 경상부분의 적자를 금융계정을 통한 자금 유입으로 상쇄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중국 내 외국인 자금 유입 확대를 위한 정부의 강한 움직임이 수반될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 가속화되고 있는 금융개방 및 개혁의 움직임 역시 일환으로 해석될 수 있다. 글로벌 시장 내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높은 비중 역시 중장기적으로 위안화 강세를 뒷받침하는 요인이 될 전망이다. 높아진 경제 비중과 위안화 국제화 진행에 따른 위안화 결제 비중의 상승은 수급적으로 위안화 강세로 귀결되기 때문이다.

[그림 9] 부동산 투자 및 주택가격 추이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그림 10] 중국 경상수지와 위안화 환율 추이



자료: Wind, 한국투자증권

따라서 현재 시점에서 위안화의 추가 약세 가능성보다는 현 레벨에서 강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 신흥국을 둘러싼 일련의 이벤트가 마무리되기 전까지 외환시장의 변동성은 단기적으로 상승할 개연성이 남아있으나, 6.8~7.0위안 범위에서 등락 이후 연말까지는 6.6위안 수준까지 강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한다.

- 본 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하여 작성된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으며, 당사의 동의 없이 어떤 형태로든 복제, 배포, 전송, 변형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는 당사 리서치센터에서 수집한 자료 및 정보를 기초로 작성된 것이나 당사가 그 자료 및 정보의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는 없으므로 당사는 본 자료로써 고객의 투자 결과에 대한 어떠한 보장도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최종적 투자 결정은 고객의 판단에 기초한 것이며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에 제시된 종목들은 리서치센터에서 수집한 자료 및 정보 또는 계량화된 모델을 기초로 작성된 것이나, 당사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 이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작성자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여행업

고군분투

비우호적인 영업 환경에서 고군분투 중

반기보고서가 공시되어 주요 여행 3사의 본사 및 세부 실적 등을 분석해보았다. 2분기 하나투어, 모두투어의 본사 및 인터파크의 투어부문 매출액 전년동기대비 성장률은 각각 3.3%, -3.8%, 1.1%에 그쳤다. 하나투어와 모두투어, 인터파크의 패키지 송출객수 증가율은 각각 7.3%, 13.2%, 13%였다. 전년동기 5월 황금연휴에 따른 기저효과뿐 아니라 하와이 화산, 일본 오사카 지진 등의 자연 재해로 단기 여행 수요도 영향을 받으면서 객단가도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외형 성장률이 부진했고 수요가 악화되면서 매출 성장 둔화에 따른 역레버리지 효과가 나타났다. 여행 수요를 끌어올리기 위해 광고, 프로모션 활동도 진행되면서 하나투어와 모두투어의 2분기 광고선전비는 112억원(+21.3% YoY), 57억원(+24.9% YoY)로 늘었다. 아웃바운드 여행업을 주로 하는 본사 영업이익률은 하나투어는 3.0%(-4.3%p), 모두투어는 6.6%(-4.2%p), 인터파크의 투어부문은 1.4%(-10.4%)에 그쳤다.

3분기도 낮아지는 눈높이

3분기 시장 상황도 상반기대비 큰 반전은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최대 성수기이고 추석 효과로 전분기대비 실적은 개선될 전망이나 당초 기대보다는 눈높이를 낮춰야할 것으로 예상된다. 월초 발표된 7월 실적에 따르면 하나투어의 패키지 송출객수는 전년동기대비 13.9%, 모두투어는 6.9% 감소했기 때문이다. 일본 등으로의 여행을 예정했다가 취소한 고객이 성수기가 가까워진 시점에서 다른 해외 지역으로 대체되지 못한 탓도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다음주 발표될 시장 출국자수는 개별 여행객은 대외 환경에 상대적으로 영향을 덜 받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주요 여행사 실적과는 달리 역성장까지는 가지 않을 가능성이 높지만 성장의 눈높이는 내려올 전망이다. 같이 발표된 8~9월 예약률 역시 부진했던 점을 감안할 때 수요가 점진적으로 회복되더라도 3분기 패키지 송출객수는 줄어든 것이다

금년 출국자수 전망 하향 조정

대외 환경 등을 감안해 금년 시장 출국자수 증가율 전망을 기존 14.2%에서 10.6%로 낮춘다. 그러나 내국인 해외 여행 시장의 구조적인 성장이 꺾였다기 보다는 단기적인 둔화라고 판단된다. 위라벨 문화, 주 52시간 근무 시행 등 사회 트렌드를 감안하면 영업 환경이 개선되면 송출객수 성장 재개가 가능할 전망이다. 주요 여행 3사의 주가는 부진한 업황을 반영해 연중 고점대비 40% 이상 하락한 상황으로 업황의 점진적 개선 시그널을 확인하면서 접근하는 전략을 제시한다.

비중확대

종목	투자의견	목표주가
하나투어	매수	105,000원
모두투어	매수	32,500원
인터파크	중립	-

최민하

mhchoi@truefriend.com

〈표 1〉 주요 여행사 본업 실적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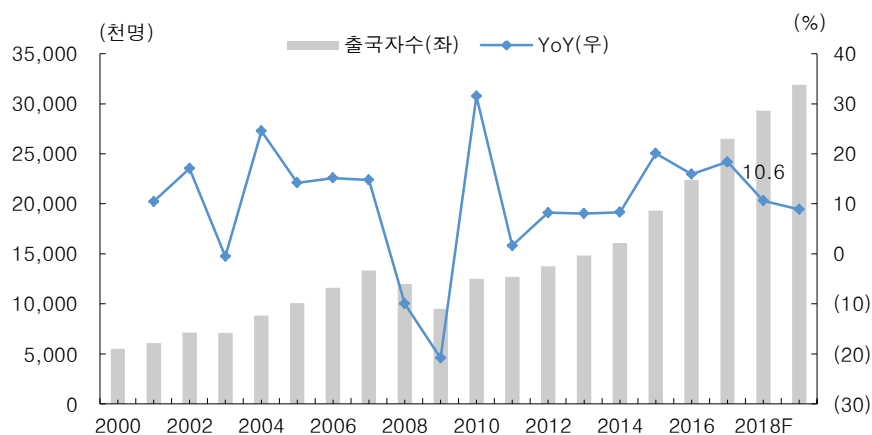
(단위: 십억원, %, %p)

	2Q17	1Q18	2Q18	QoQ	YoY
하나투어					
매출액	121.8	158.6	125.9	(20.6)	3.3
영업이익	9.0	13.9	3.8	(72.4)	(57.4)
영업이익률	7.4	8.7	3.0	(5.7)	(4.3)
세전이익	(10.4)	19.1	0.3	(98.2)	(흑전)
순이익	(12.6)	15.2	(0.9)	(적전)	(적지)
모두투어					
매출액	73.2	94.3	70.4	(25.3)	(3.8)
영업이익	7.9	10.5	4.6	(56.1)	(41.3)
영업이익률	10.8	11.2	6.6	(4.6)	(4.2)
세전이익	10.1	12.1	5.2	(57.1)	(48.3)
순이익	7.5	9.6	4.0	(58.4)	(47.2)
인터파크					
매출액	24.6	26.7	24.8	(0.1)	0.0
영업이익	2.9	1.1	0.4	(0.7)	(0.9)
영업이익률	11.8	4.0	1.4	(2.5)	(10.4)

주: 하나투어와 모두투어는 본사 실적, 인터파크는 연결 실적 내 '투어 부문' 실적 기준

자료: 각 사,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DART), 한국투자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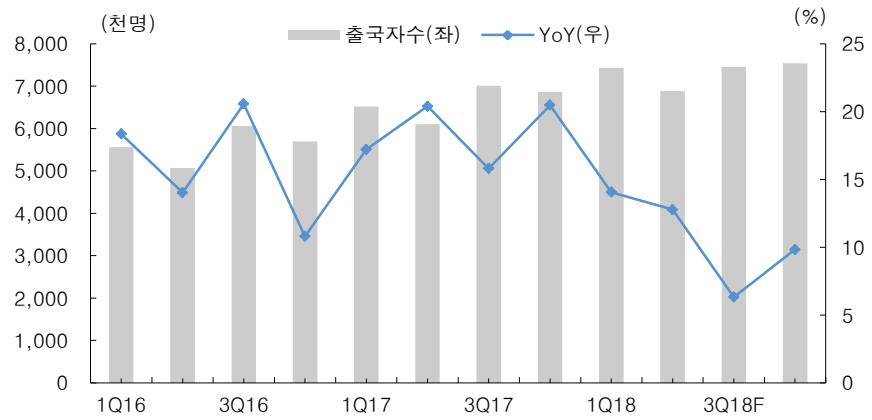
〈그림 1〉 연간 내국인 출국자수 추이와 전망



주: 승무원수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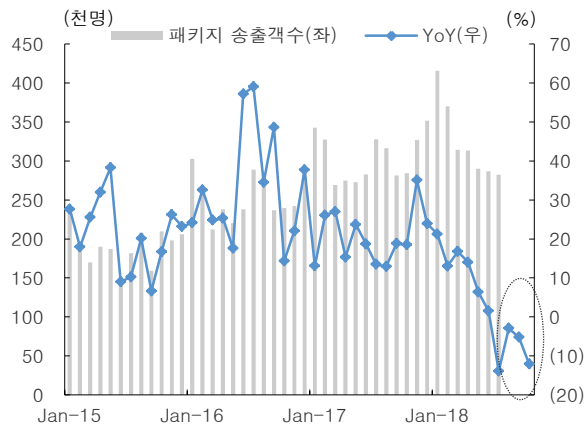
자료: 한국관광공사, 한국투자증권

[그림 2] 분기별 내국인 출국자수 추이와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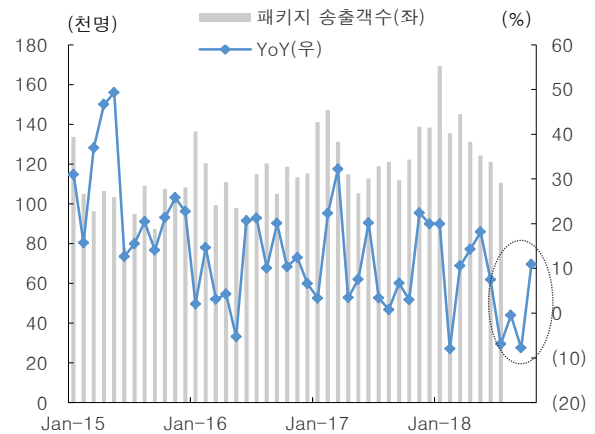
주: 승무원수 포함
자료: 한국관광공사, 한국투자증권

[그림 3] 하나투어의 패키지 송출객수 성장률 및 예약률



주: 2018년 8~10월 예약률은 8월 1일 발표 기준
자료: 하나투어, 한국투자증권

[그림 4] 모두투어의 패키지 송출객수 성장률 및 예약률



주: 2018년 8~10월 예약률은 8월 1일 발표 기준
자료: 모두투어, 한국투자증권

〈표 2〉 하나투어의 분기 실적 전망

(단위: 십억원, %, %p)

	1Q16	2Q16	3Q16	4Q16	1Q17	2Q17	3Q17	4Q17	1Q18	2Q18	3Q18F	4Q18F
출국자수	5,178	4,695	5,659	5,312	6,114	5,713	6,572	6,438	6,997	6,453	6,997	7,080
하나's 전체 송출객수	1,198	1,103	1,344	1,285	1,424	1,257	1,466	1,487	1,661	1,383	1,403	1,553
하나's 패키지 송출객수	775	697	806	766	939	830	925	963	1,100	890	860	985
시장점유율(%)	23.1	23.5	23.7	24.2	23.3	22.0	22.3	23.1	23.7	21.4	20.0	21.9
매출액	149.0	139.7	160.0	146.9	193.0	185.8	166.9	181.4	229.3	196.7	218.7	237.5
본사	103.8	86.3	104.1	91.5	127.4	121.8	106.7	120.3	158.6	125.9	136.6	148.3
연결자회사	52.7	62.1	65.2	63.5	66.4	69.4	69.5	71.7	78.7	78.9	72.0	77.9
SM 면세점	19.1	25.5	26.5	23.0	25.1	22.5	23.0	20.6	22.4	25.1	24.6	23.7
영업비용	139.4	142.5	149.7	143.1	182.2	180.1	157.1	165.6	217.3	191.9	208.2	225.3
영업이익	9.6	(2.8)	10.4	3.8	10.8	5.7	9.9	15.8	12.0	4.8	10.5	12.2
영업이익률	6.4	(2.0)	6.5	2.6	5.6	3.1	5.9	8.7	5.2	2.4	4.8	5.1
본사	11	0.4	12.7	6.0	16.4	9.0	9.4	12.9	13.9	3.8	8.4	7.8
자회사	(1.7)	(3.2)	(2.3)	(2.2)	(5.6)	(3.8)	0.5	3.9	(1.9)	0.4	2.1	4.4
SM 면세점	(6.7)	(7.5)	(6.6)	(7.1)	(8.2)	(9.5)	(5.3)	(4.5)	(4.9)	(4.0)	(3.5)	(2.7)
세전이익	9.4	(4.6)	12.0	7.1	12.0	1.7	10.4	15.4	12.9	5.2	11.8	15.4
지배주주순이익	3.8	(4.7)	6.4	2.5	5.6	(2.2)	4.0	6.5	6.7	1.8	7.5	9.8
(YoY)												
출국자수	18.9	14.7	21.3	11.4	18.1	21.7	16.1	21.2	14.4	13.0	6.5	10.0
하나's 전체 송출객수	26.2	30.5	43.6	28.0	18.9	14.0	9.1	15.7	16.6	10.0	(4.3)	4.5
하나's 패키지 송출객수	27.1	31.7	46.7	24.7	21.3	19.2	14.9	25.8	17.1	7.3	(7.0)	2.3
시장점유율(%)	1.3	2.9	3.7	3.1	0.2	(1.5)	(1.4)	(1.1)	0.4	(0.6)	(2.3)	(1.2)
매출액	26.1	27.9	49.4	17.6	NM	NM	4.3	23.5	18.8	5.9	NM	NM
본사	7.1	(0.1)	21.2	0.8	NM	NM	2.5	31.4	24.4	3.3	NM	NM
연결자회사	96.3	115.3	132.7	49.9	NM	NM	6.7	12.9	18.6	13.6	NM	NM
SM 면세점	#DIV/0!	#DIV/0!	25,572.9	124.4	NM	NM	(13.0)	(10.5)	(10.7)	11.5	NM	NM
영업비용	37.5	46.2	49.5	23.6	NM	NM	4.9	15.7	19.3	6.6	NM	NM
영업이익	(43.0)	(적전)	46.7	(58.5)	12.7	(흑전)	(4.9)	317.7	11.0	(15.9)	6.3	(23.0)
영업이익률	(7.8)	(12.8)	(0.1)	(4.7)	(0.8)	5.1	(0.6)	6.1	(0.4)	(0.6)	(1.1)	(3.6)
본사	(15.9)	(95.5)	143.5	(25.1)	45.2	2,345.9	(26.2)	115.4	(15.6)	(57.4)	(10.5)	(39.7)
자회사	(적전)	(적전)	(적전)	(적전)	(적지)	(적지)	(흑전)	(흑전)	(적지)	(흑전)	337.9	12.8
SM 면세점	(적지)	(적지)	(적지)	(적지)	(적지)	(적지)	(적지)	(적지)	(적지)	(적지)	(적지)	(적지)
세전이익	(47.0)	(적전)	130.3	(31.7)	26.8	(흑전)	(13.5)	115.3	7.8	209.8	13.7	0.4
지배주주순이익	(68.8)	(적전)	119.9	(64.0)	49.9	(적지)	(37.4)	159.8	18.1	(흑전)	86.6	50.3

주: 1. 내국인 출국자수는 승무원 제외한 인원

2. SM면세점의 인천공항점은 15년 11월 그랜드오픈(10월 말 소규모 오픈), 서울 시내점은 16년 1월 29일 부분 개장, 4월 29일 그랜드 오픈

3. 2018년부터 K-IFRS 1115호 도입으로 매출액 인식 기준이 변경돼 1Q17~2Q17 실적은 소급 적용. 그러나 3Q17~4Q17 및 2017년 실적은 기존 회계기준에 근거한 수치.

회계기준 변경으로 크게 변경된 매출액, 영업비용 성장률에 대한 부분은 YoY 표기를 제외

자료: 하나투어, 한국투자증권

〈표 3〉 모두투어의 분기 실적 추이와 전망

(단위: 십억원, %, %p)

	1Q16	2Q16	3Q16	4Q16	1Q17	2Q17	3Q17	4Q17	1Q18	2Q18	3Q18F	4Q18F
출국자수	5,178	4,695	5,659	5,312	6,114	5,713	6,572	6,438	6,997	6,453	6,997	7,080
모두's 전체 송출객수	578	519	613	589	709	630	695	698	764	650	640	714
모두's 패키지 송출객수	356	303	340	347	420	333	352	399	450	377	327	422
시장점유율(%)	11.2	11.1	10.8	11.1	11.6	11.0	10.6	10.8	10.9	10.1	9.2	10.1
매출액	59.5	54.3	64.2	59.1	90.4	84.1	72.7	77.0	109.8	83.4	89.5	103.9
본사	53.1	46.4	55.7	50.7	79.5	73.2	77.2	80.6	94.3	70.4	74.1	86.6
연결자회사	6.7	8.2	8.8	9.0	10.0	10.6	10.7	13.1	17.0	14.5	17.2	18.8
영업비용	55.2	50.6	55.9	55.2	79.4	76.8	64.5	71.3	100.7	79.4	83.3	96.3
영업이익	4.3	3.7	8.3	3.8	11.0	7.3	8.1	5.6	9.1	4.0	6.2	7.6
영업이익률	7.3	6.8	13.0	6.5	12.2	8.7	11.2	7.3	8.3	4.8	7.0	7.3
본사	6.3	4.8	9.0	5.4	11.7	7.9	8.8	4.5	10.5	4.6	5.5	6.1
자회사	(2.0)	(1.1)	(0.7)	(1.6)	(0.7)	(0.5)	(0.7)	1.3	(1.4)	(0.6)	0.8	1.5
자유투어	(0.2)	0.0	0.0	(0.0)	(0.1)	(0.1)	(0.2)	(0.2)	(0.3)	(0.1)	(0.1)	(0.1)
세전이익	4.9	4.7	9.1	4.3	10.9	8.4	8.5	5.1	9.7	3.9	6.7	6.6
지배주주순이익	3.5	3.5	6.9	2.9	8.1	6.1	5.9	4.1	8.0	2.6	4.9	4.8
(YoY)												
출국자수	18.9	14.7	21.3	11.4	18.1	21.7	16.1	21.2	14.4	13.0	6.5	10.0
모두's 전체 송출객수	18.8	18.2	26.1	12.8	22.6	21.5	13.5	18.4	7.7	3.2	(7.9)	2.3
모두's 패키지 송출객수	6.3	5.3	16.7	9.8	17.8	10.0	3.5	15.0	7.2	13.2	(7.0)	5.6
시장점유율(%)	(0.0)	0.3	0.4	0.1	0.4	(0.0)	(0.2)	(0.3)	(0.7)	(1.0)	(1.4)	(0.8)
매출액	18.2	9.4	24.8	11.6	NM	NM	13.2	30.3	21.5	(0.8)	NM	NM
본사	13.4	5.9	22.5	9.8	NM	NM	38.7	59.1	18.6	(3.8)	NM	NM
연결자회사	53.2	15.8	54.4	20.3	NM	NM	21.1	46.2	69.7	36.6	NM	NM
영업비용	25.2	13.9	16.1	7.9	NM	NM	15.5	29.1	26.8	3.4	NM	NM
영업이익	(30.9)	(28.9)	149.6	123.3	154.8	99.9	(2.3)	48.1	(17.1)	(45.6)	(23.5)	33.9
영업이익률	(5.2)	(3.6)	6.5	3.2	4.9	2.0	(1.8)	0.9	(3.9)	(3.9)	(4.2)	(0.1)
본사	(11.5)	(24.1)	62.9	60.1	85.9	65.4	(2.1)	(17.2)	(10.3)	(41.3)	(38.1)	36.8
자회사	(적지)	(적지)	(적지)	(적지)	(적지)	(적지)	(적지)	(흑전)	(적지)	(적지)	(흑전)	14.7
자유투어	(적지)	32.5	(흑전)	(적전)	(적지)	(적전)	(적전)	(적지)	(적지)	(적지)	(적지)	(적지)
세전이익	(33.9)	(25.7)	118.8	2,929.1	122.1	81.4	(7.0)	20.0	(11.1)	(53.3)	(20.2)	29.2
지배주주순이익	(37.5)	(13.9)	113.1	897.0	130.5	71.6	(14.5)	45.3	(1.5)	(56.5)	(16.6)	15.5

주: 1. 내국인 출국자수는 승무원 제외인 인원

2. 2018년부터 K-IFRS 1115호 도입으로 매출액 인식 기준이 변경돼 1Q17~2Q17 실적은 소급 적용. 그러나 3Q17~4Q17 및 2017년 실적은 기존 회계기준에 근거한 수치.

회계기준 변경으로 크게 변경된 매출액, 영업비용 성장률에 대한 부분은 YoY 표기를 제외

자료: 모두투어, 한국투자증권

〈표 4〉 인터파크의 분기 실적 추이와 전망

(단위: 십억원, %, %p)

	1Q16	2Q16	3Q16	4Q16	1Q17	2Q17	3Q17	4Q17	1Q18	2Q18	3Q18F	4Q18F
GMV	770.1	835.5	848.6	861.8	822.7	874.9	905.8	916.9	938.1	933.9	996.0	1,002.8
쇼핑	195.2	202.0	195.0	209.7	199.1	207.9	206.7	220.5	235.3	239.5	224.9	238.0
도서	53.9	39.0	45.0	42.4	48.7	33.5	41.6	39.4	48.2	40.5	38.4	37.6
ENT	131.8	127.0	149.9	194.6	131.1	168.7	175.9	213.9	216.1	185.8	185.1	227.9
투어	389.2	467.4	458.7	415.1	443.8	464.8	481.5	443.1	438.5	468.1	547.5	499.3
매출액	115.3	102.8	110.9	137.6	124.3	105.4	121.2	131.6	126.2	113.8	128.2	141.8
쇼핑	18.6	18.9	20.6	21.7	23.9	20.5	19.9	21.3	22.0	23.2	22.5	23.9
도서	49.3	35.0	40.9	51.6	48.5	33.5	39.4	36.4	47.9	45.0	35.6	34.8
ENT	25.5	27.8	21.3	41.8	27.1	26.8	31.9	47.8	29.5	20.8	35.7	53.7
투어	21.9	21.1	28.1	22.5	24.9	24.6	30.0	26.1	26.7	24.8	34.4	29.5
영업이익	6.0	(5.7)	5.2	3.9	9.8	1.7	2.1	2.9	(2.5)	0.7	4.5	7.1
영업이익률	5.2	(5.6)	4.7	2.8	7.8	1.6	1.7	2.2	(2.0)	0.6	3.5	5.0
쇼핑	(1.2)	0.3	(0.9)	(1.3)	1.5	(0.2)	(1.6)	(1.3)	(1.6)	1.4	1.3	(2.0)
도서	(0.5)	(1.6)	(1.1)	(2.5)	(0.4)	(2.5)	(2.4)	(4.2)	(3.3)	(2.4)	(2.1)	(0.8)
ENT	4.0	0.3	1.9	9.1	4.6	1.6	(0.4)	6.0	1.4	1.3	2.7	7.0
투어	3.7	(4.7)	5.3	(1.4)	4.0	2.9	6.5	2.4	1.1	0.4	2.6	2.9
세전이익	5.3	(5.9)	7.2	(2.6)	8.4	0.3	1.3	2.5	(2.8)	(0.8)	4.1	5.8
지배주주순이익	3.8	(4.6)	6.1	(2.9)	5.9	0.1	0.7	1.6	(4.7)	(1.7)	2.9	4.1
(YoY)												
GMV	12.2	20.7	13.2	4.5	6.8	4.7	6.7	6.4	14.0	6.7	10.0	9.4
쇼핑	20.1	15.2	11.8	0.2	2.0	2.9	6.0	5.2	18.2	15.2	8.8	7.9
도서	4.6	(0.5)	(2.2)	(8.7)	(9.7)	(14.2)	(7.5)	(7.1)	(1.0)	21.0	(7.6)	(4.5)
ENT	8.6	22.2	8.4	(3.9)	(0.5)	32.8	17.4	9.9	64.8	10.1	5.2	6.6
투어	10.9	25.1	17.3	13.2	14.0	(0.6)	5.0	6.8	(1.2)	0.7	13.7	12.7
매출액	15.8	20.1	6.9	21.6	7.8	2.6	9.3	(4.3)	1.5	7.9	5.8	7.7
쇼핑	(6.6)	14.3	16.9	(8.3)	28.2	8.9	(3.5)	(1.8)	(7.7)	12.9	13.2	12.0
도서	9.6	1.6	(0.5)	25.9	(1.6)	(4.2)	(3.7)	(29.4)	(1.2)	34.4	(9.6)	(4.6)
ENT	56.1	66.2	2.3	53.1	6.0	(3.5)	49.7	14.4	9.0	(22.6)	11.8	12.3
투어	19.4	17.9	16.1	6.1	13.8	16.4	6.9	16.0	7.3	1.1	14.8	13.1
영업이익	38.2	(적전)	(37.4)	(34.7)	61.6	(흑전)	(60.1)	(23.7)	(적전)	(59.3)	116.9	140.2
영업이익률	0.8	(11.4)	(3.3)	(2.4)	2.6	7.2	(3.0)	(0.6)	(9.9)	(1.0)	1.8	2.7
쇼핑	(적지)	(49.5)	(적지)	(적지)	(흑전)	(적전)	(적지)	(적지)	(적전)	(흑전)	(흑전)	(적지)
도서	(적전)	(적지)	(적지)	(적지)	(적지)	(적지)	(적지)	(적지)	(적지)	(적지)	(적지)	(적지)
ENT	166.9	(88.9)	(22.8)	140.5	14.1	505.0	(적전)	(34.2)	(70.5)	(19.5)	(흑전)	16.8
투어	40.0	(적전)	(16.8)	(적전)	8.2	(흑전)	21.4	(흑전)	(73.9)	(87.7)	(59.8)	17.6
세전이익	24.2	(적전)	(4.3)	(적전)	58.2	(흑전)	(81.7)	(흑전)	(적전)	(적전)	210.8	136.4
지배주주순이익	19.0	(적전)	8.1	(적전)	57.4	(흑전)	(88.5)	(흑전)	(적전)	(적전)	311.2	150.3

자료: 인터파크, 한국투자증권

〈표 5〉 커버리지 valuation

투자증권 및 목표주가				실적 및 Valuation									
종목				매출액 (십억원)	영업이익 (십억원)	순이익 (십억원)	EPS (원)	BPS (원)	PER (배)	PBR (배)	ROE (%)	EV/EBITDA (배)	DY (%)
하나투어 (039130)	투자증권	매수	2016A	596	21	8	727	19,237	90.9	3.4	4.2	15.4	2.3
	목표주가(원)	105,000	2017A	682	41	13	1,172	20,553	87.9	5.0	6.6	15.8	1.5
	현재가 (8/17, 원)	67,100	2018F	882	39	26	2,336	21,000	28.7	3.2	12.5	8.7	2.2
	시가총액(십억원)	779	2019F	969	65	46	4,117	23,056	16.3	2.9	20.5	5.8	2.4
			2020F	1,044	78	56	5,020	25,876	13.4	2.6	22.2	4.9	2.5
모두투어 (080160)	투자증권	매수	2016A	237	20	17	953	6,983	20.3	2.8	16.5	10.6	2.1
	목표주가(원)	32,500	2017A	291	32	24	1,340	8,121	22.8	3.8	20.3	13.9	1.5
	현재가 (8/17, 원)	21,800	2018F	387	27	20	1,108	8,716	19.7	2.5	14.3	9.3	2.2
	시가총액(십억원)	412	2019F	425	42	33	1,829	9,844	11.9	2.2	20.9	5.9	2.9
			2020F	460	47	37	2,078	11,161	10.5	2.0	20.7	4.7	3.2
인터파크 (108790)	투자증권	중립	2016A	466	9	2	71	4,981	143.7	2.0	1.4	14.3	1.0
	목표주가(원)	—	2017A	483	16	8	253	5,119	36.8	1.8	5.0	9.0	1.6
	현재가 (8/17, 원)	6,030	2018F	510	10	1	18	5,036	334.6	1.2	0.4	7.0	1.7
	시가총액(십억원)	199	2019F	528	17	11	328	5,240	18.4	1.2	6.4	5.1	2.1
			2020F	568	22	14	432	5,522	14.0	1.1	8.0	4.1	2.5

자료: 각 사, 한국투자증권

제약 · 바이오

비중확대

나고야 의정서 영향은 제한적

나고야 의정서 8월 18일부터 발효

나고야 의정서란 2010년 10월 일본 나고야 총회에서 채택된 국제 생물다양성 협약으로 유전자원을 가지고 의약품이나 화장품 등을 개발하여 이익을 내면 해당 유전자원 이용자가 유전자원 제공자(기업 · 기관 혹은 국가)와 이익을 공유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2014년 10월 평창총회에서 발효된 이후 현재까지 협약 당사국 196곳 중 109개국이 비준을 받았다. 우리나라는 작년 4월 나고야 의정서 비준동의안을 가결했으며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8월 18일부터 정식 시행에 들어간다. 이에 따라 해외 생물 유전자원을 이용하는 국내 기업은 해외 당사국이 정한 법적 승인 절차를 준수한 신고서를 발급받아 국내 관련 기관에 90일 안에 제출하고 제공국과 협상을 거쳐 수익을 나눠야 한다. 다만 모든 유전자원에 대해 신고서를 내고 로열티를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자원을 들여와 국내에서 연구개발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제약 · 바이오 섹터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

나고야 의정서가 8월 18일부터 발효되면서 국내 제약 및 화장품 업체들의 수익성 훼손이 우려되는 상황이나 국내 제약업체들에 전반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한다. 국내 제약사들이 판매하고 있는 품목들 중 해외 생물자원을 이용하는 모든 품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어려우나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제한적일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또한 해외 생물자원을 사용한 품목의 매출비중이 높다 하더라도 로열티 지급 범위가 국가별로 다르고 해당 국가는 그 범위만 정할 뿐 실제 로열티 지급률은 유전자원 제공자와 이용자 간 협상을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따라서 제약사들은 로열티 지급률 협상 혹은 일부 품목의 경우 원재료 조달 국가 변경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대표적인 수혜주로 SK바이오랜드 등이 있음

나고야 의정서 실행으로 인해 국내산 원료가 수입산을 대체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국내 원료의약품 업체들에 관심을 권고한다. 대표적인 수혜주로는 100여건의 특허를 보유한 천연물 원료 소재 전문업체인 SK바이오랜드가 있다. 자연추출물 배합기술을 바탕으로 원료의약품(소화위장개선에 도움을 주는 애엽추출물 등의 주성분)을 비롯하여 화장품 소재 등을 생산하고 있어 수입산 원료 대체에 대한 수요증가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2018년 2분기 매출비중은 화장품 원료 59%, 건강기능식품 원료 26%, 의약품 원료 1%, 의료가기외 원료(콜라겐 마스크팩 등) 14%로 이루어져 있다.

진흥국

hg.jin@truefriend.com

정은영

eunice.jung@truefriend.com

한편 아미노산 제조관련 핵심기술을 바탕으로 원가 및 품질경쟁력을 갖춘 원료의약품, 화장품소재, 식품첨가물 원료를 생산하고 있는 대봉엘에스도 수혜가 예상된다. 제네릭 원료의약품 호흡기치료제, 고혈압치료제, 소화기관치료제 부문에서 경쟁력을 가지고 있으며 화장품 소재도 판매하고 있다. 최근 중국산 발사르탄 판매로 홍역을 치렀으나 이번 나고야 의정서 발효로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다. 2018년 2분기 매출비중은 원료의약품/화장품 소재 제품 41%, 원료의약품/화장품 소재 상품 46%, 기타 13%로 이루어져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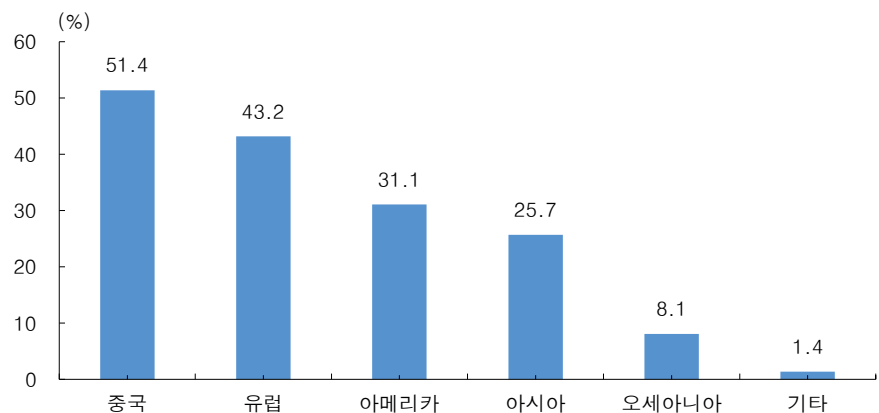
국내 바이오 기업들이 원재료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국가는 중국으로 비중은 약 51%(중복응답 가능)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외 업체들이 수입원료를 사용하며 나고야 의정서에 의해 로열티를 지불할 경우 수출비중이 높은 중국 업체의 수혜도 기대해 볼 수 있다. 2017년 8월 코스닥에 상장한 중국 화장품 원재료 기업인 컬러레이는 화장품 원료인 진주광택 안료를 생산한다. 펠안료라고도 불리는 진주광택안료는 립스틱, 샴푸, 린스, 매니큐어 등을 포함한 메이크업 제품과 자동차제조용 도료, 건축내외장용 도료 등에 사용되고 있다. 2017년 수출비중은 45%에 달해 나고야 의정서 시행에 따른 해외업체들로부터의 수혜가 예상된다.

〈표 1〉 나고야 의정서 수혜주

기업명	코드	내용
SK 바이오랜드	A052260	자연추출물 배합기술을 바탕으로 원료의약품을 비롯하여 화장품 소재 등을 생산하고 있어 수입산 원료 대체에 대한 수요증가가 예상 2018년 2분기 매출비중 화장품 원료 59%, 건강기능성식품 원료 26%, 의약품 원료 1%, 의료기기용 원료(콜라겐 마스크팩 등) 14%
대봉엘에스	A078140	제네릭 원료의약품 호흡기치료제, 고혈압치료제, 소화기관치료제 부문에서 경쟁력을 가지고 있으며 화장품 소재도 판매 2018년 2분기 매출비중 원료의약품/화장품 소재 제품 41%, 원료의약품/화장품 소재 상품 46%, 기타 13%
컬러레이	A900310	2017년 8월 코스닥에 상장한 중국 화장품 원재료 기업인 컬러레이는 화장품 원료인 진주광택 안료를 생산 2017년 수출비중은 45%에 달해 나고야 의정서 시행에 따른 해외업체들로부터의 수혜가 예상

자료: 한국투자증권

[그림 1] 바이오기업 해외 생물자원 원산지 비중



주: 74개 업체 대상 설문 중복응답
자료: 한국바이오협회, 한국투자증권

〈표 2〉 천연물의약품 현황

기업명	품목	적응증	천연물
동아제약	써큐란 연질캡슐	혈액순환개선	은행엽엑스
종근당	동익고 카타플라스마	소염진통	차지연
동화약품	동화 은행엽엑스정	혈액순환개선	은행엽엑스
대웅제약	복합우루사	육체피로	인삼
	헤모에이큐	육체피로	천궁, 작약
광동제약	바소맥연질캡셀	혈액순환개선	은행엽엑스
	덴트미정	치주질환	옥수수
	편자환	간염	사향, 우황, 전철
녹십자	신바로	골관절염	구척, 오가피, 우슬, 두충
동아에스티	스티렌	급만성 위염	애엽추출물
	모티리톤	기능성 소화불량 증	견우자
SK 케미칼	조인스정	관절염	위령성, 팔루근, 하고초
안국약품	시네츄라시럽	급성상기도감염	아이비엽과 황련추출물
한국피엠지제약	레일라정	골관절염	당귀, 모과, 오가피, 우슬
구주제약	아피톡신	관절염	봉독 성분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언론자료, 한국투자증권

2018. 8. 20

NVIDIA(NVDA US)

가이던스 매출액, 시장 기대치 하회

FY2Q19, 매출액 31억달러, EPS 1.76달러로 컨센서스 상회
 FY3Q19 매출액 가이던스 32.5억달러(+/- 2%)로 컨센서스 32.9억달러 하회
 FY3Q19 매출액 증가율 23%로 둔화 전망

2분기 매출액 31억달러, 순이익 11억달러로 컨센서스 상회

엔비디아의 2분기 매출액은 31억달러로 시장 컨센서스를 1% 상회했다. EPS도 1.76달러로 컨센서스 EPS 1.68달러를 5% 상회했다. 게이밍부문 매출액이 전년 대비 52% 증가했고, 데이터센터부문 매출액도 83% 증가했다. 반면, 암호화화폐 매출이 포함되어 있는 OEM&IP부문의 매출액은 전년대비 54% 감소했다. 수익성 높은 암호화화폐 매출액이 감소하면서 영업이익은 시장기대치를 하회했지만 낮은 법인세율이 적용돼 EPS는 시장기대를 상회했다. EPS가 시장기대를 상회했음에도 주가는 시간외거래에서 6% 하락했는데, 다음 분기 매출액 가이던스 32.5억달러 (+/-2%)가 시장 기대치 32.9억달러를 소폭 하회했기 때문이다. 암호화화폐용 GPU 매출이 줄어든 탓도 있지만 전체 매출의 58%를 차지하는 게이밍부문 매출액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우려다. 가이던스 기준 다음 분기 매출액 전년대비 증가율은 21~26%로 2016년 2분기 이후 가장 낮다.

데이터센터부문 매출액 증가율 83%로 고성장 지속

가장 성장성이 높은 분야인 데이터센터부문의 매출액은 7.6억달러로 전년대비 83% 증가했다. 하지만, 다음 분기 매출액 가이던스를 고려해 보면 이 부문의 매출액 증가율도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여전히 높은 매출액 증가율이기는 하지만 증가율 추이는 점차 낮아지고 있다. 특히, hyper-scale datacenter 투자를 주도하고 있는 인터넷기반 업체들(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페이스북, IBM)의 설비투자 증가율이 둔화될 전망이어서 데이터센터부문의 매출액 증가율도 점차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

성장 모멘텀 둔화 예상

현재 주가는 2018년 추정EPS 기준 PER 32배이다. 높은 성장성이 유지되지 않으면 정당화되기 쉽지 않은 밸류에이션이다. 따라서 매출액 증가율이 하락하는 구간에서 주가는 약세가 예상된다. 데이터센터 투자 모멘텀이 둔화되면 엔비디아의 데이터센터부문 매출액 증가율도 낮아질 수밖에 없다.

하 회	부 합	상 회
-----	-----	-----

영업이익의 컨센서스 대비를 의미

Stock Data

S&P500(8/16)	2,841
주가(8/16)	257.4
시가총액(십억달러)	156.5
발행주식수(백만)	608.0
52주 최고/최저가(달러)	269.2/157.4
일평균거래대금(6개월, 백만달러)	3.0
유동주식비율(%)	90.7
주요주주(%)	FMR LLC 8.0
	VANGUARD GROUP 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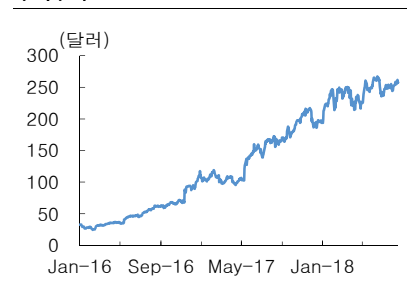
Valuation 지표

	FY18A	FY19F	FY20F
PER(x)	52.6	32.8	30.1
PBR(x)	19.7	13.5	9.9
ROE(%)	46.1	53.3	41.1
DY(%)	0.2	0.2	0.3
EV/EBITDA(x)	41.8	27.5	24.4
EPS(달러)	5.1	7.8	8.4
BPS(달러)	12.3	18.8	25.7

주가상승률

	1개월	6개월	12개월
절대주가(%)	1.5	5.6	59.4
S&P500 대비(%p)	0.4	1.5	36.4

주가추이



자료: Bloomberg

블룸버그 투자 컨센서스

	매수	보유	매도
비중(%)	69.0	28.6	2.4

자료: Bloombe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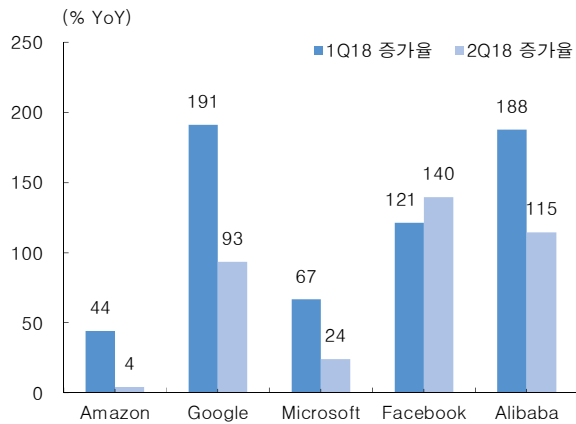
블룸버그 평균목표주가 (USD)

283.8

유종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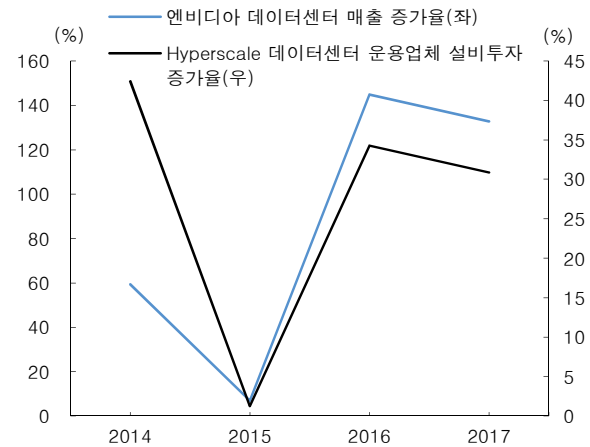
jongwoo.yoo@truefriend.com

[그림 1] Amazon, Google, Microsoft, Facebook, Alibaba 설비투자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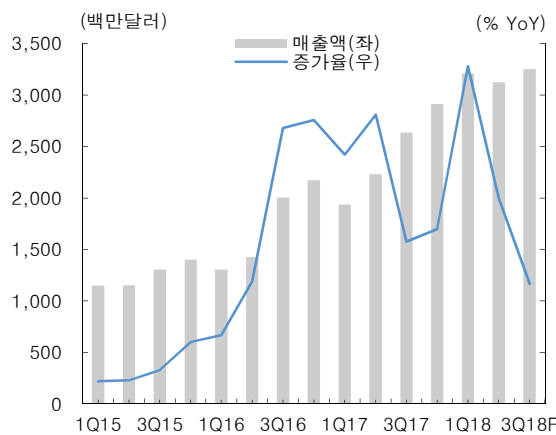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그림 2] Hyperscale 데이터센터 운용업체 설비투자 증가율 vs. 엔비디아 데이터센터 매출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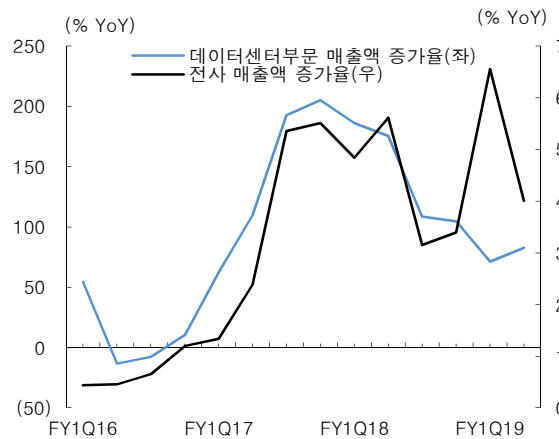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NVIDIA, 한국투자증권

[그림 3] 엔비디아 매출액 및 증가율 추이



주: 3Q18은 가이던스 매출액
자료: NVIDIA, 한국투자증권

[그림 4] 엔비디아 데이터센터부문 vs. 전사 매출액 증가율



자료: NVIDIA, 한국투자증권

<표 1> FY2Q19 실적 요약

(단위: 백만달러)

	FY2Q18	FY3Q18	FY4Q18	FY1Q19	FY2Q19P	QoQ(%)	YoY(%)	컨센서스
매출액	2,230	2,636	2,911	3,207	3,123	(2.6)	40.0	3,105
영업이익	692	898	1,076	1,295	1,159	(10.5)	67.5	1,292
영업이익률(%)	31.0	34.1	37.0	40.4	37.1			41.6
순이익	583	838	1,118	1,244	1,101	(11.5)	88.9	1,047

자료: NVIDIA, Bloomberg

〈표 2〉 분기별 주요 사업실적 요약

(단위: 백만달러)

	FY1Q17	FY2Q17	FY3Q17	FY4Q17	FY1Q18	FY2Q18	FY3Q18	FY4Q18	FY1Q19	FY2Q19	FY16	FY17	FY18
매출	1,305	1,428	2,004	2,173	1,937	2,230	2,636	2,911	3,207	3,123	5,010	6,910	9,714
Gaming	687	781	1,244	1,348	1,027	1,186	1,561	1,739	1,723	1,805	2,818	4,060	5,513
Professional visualization	189	214	207	225	205	235	239	254	251	281	750	835	933
Datacenter	143	151	240	296	409	416	501	606	701	760	339	830	1,932
Auto	113	119	127	128	140	142	144	132	145	161	320	487	558
OEM & IP	173	163	186	176	156	251	191	180	387	116	783	698	778
영업이익	245	317	639	733	554	688	895	1,073	1,295	1,157	747	1,934	3,210
순이익	208	261	542	655	507	583	838	1,118	1,244	1,101	614	1,666	3,047

주: FY18 ~ 2017.2~2018.1

자료: NVIDIA,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표 3〉 실적 및 주요 지표

	2014.1	2015.1	2016.1	2017.1	2018.1	2019.1F	2020.1F
매출액(백만달러)	4,130	4,682	5,010	6,910	9,714	13,081	14,835
Gaming	1,511	2,058	2,818	4,060	5,513	-	-
Professional Visualization	789	795	750	835	933	-	-
Datacenter	199	317	339	830	1,932	-	-
Auto	99	183	320	487	558	-	-
OEM & IP	1,532	1,329	783	698	778	-	-
영업이익(백만달러)	496	759	747	1,934	3,210	5,492	6,227
영업이익률(%)	12.0	16.2	14.9	28.0	33.0	42.0	42.0
세전이익(백만달러)	510	755	743	1,905	3,196	5,572	6,272
순이익(백만달러)	440	631	614	1,666	3,047	4,937	5,530
순이익률(%)	10.7	13.5	12.3	24.1	31.4	37.7	37.3
EBITDA	735	979	944	2,121	3,409	5,415	6,155
EBITDA margin(%)	17.8	20.9	18.8	30.7	35.1	41.4	41.5
EPS(달러)	0.8	1.1	1.1	3.1	5.1	7.9	8.8
EPS증가율(%)	(17.6)	52.0	(0.9)	172.6	65.3	55.8	11.1
BPS	7.8	8.1	8.3	9.8	12.3	18.7	25.6
DPS	0.3	0.3	0.4	0.5	0.6	0.6	0.7
ROA(%)	6.4	8.7	8.4	19.4	28.9	36.9	31.2
ROE(%)	9.5	14.2	13.8	32.6	46.1	49.9	39.8
배당수익률(%)	2.0	1.6	1.3	0.4	0.2	0.2	0.3
배당성장률(%)	41.1	29.5	34.7	15.7	11.2	11.2	11.2
순차입금(백만달러)	3,295	3,222	3,523	3,978	5,108	7,202	11,024
PER(x)	21.2	18.9	21.6	43.0	52.6	32.5	29.2
PBR(x)	2.0	2.6	3.5	11.3	19.7	13.8	10.1
EV/EBITDA(x)	7.5	8.2	13.0	29.0	41.8	27.8	24.5

주: 2018년 8월 16일 종가 기준

자료: NVIDIA,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 본 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하여 작성된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으며, 당사의 동의 없이 어떤 형태로든 복제, 배포, 전송, 변형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는 당사 리서치센터에서 수집한 자료 및 정보를 기초로 작성된 것이나 당사가 그 자료 및 정보의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는 없으므로 당사는 본 자료로써 고객의 투자 결정에 대한 어떠한 보장도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최종적 투자 결정은 고객의 판단에 기초한 것이며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에 제시된 증목들은 리서치센터에서 수집한 자료 및 정보 또는 계량화된 모델을 기초로 작성된 것이나, 당사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 이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작성자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전일 시장 동향과 특징주

미중 무역협상 재개 기대감 속 외국인 매수에 힘입어 상승

- 뉴욕증시는 월마트를 비롯한 기업 실적 호조와 미국과 중국의 무역협상 재개 소식에 다우지수가 1.5% 이상 강세를 보이며 일제히 상승. 소폭 오름세로 출발한 코스피는 외국인이 6거래일 만에 순매수로 돌아선 가운데 개인과 기타법인 등 일부 기관 매수에 힘입어 상승 마감. 코스닥은 외국인과 기관 동반 매수에 힘입어 1.5% 가까운 강세를 보이며 770P선을 회복. 미국과 중국의 무역협상 재개 기대감 속 연일 매도 공세를 펼쳐온 외국인의 매수세가 유입되고 제약 바이오 업종이 강세를 보이며 지수 상승을 주도
- 종목별 움직임을 살펴보면, 미 공군 차세대 고등훈련기(APT) 입찰 사업에 최종 제안을 제출한 한국항공우주가 수주 기대감에 강세를 보였으며, 정부의 복지 예산 확대 정책과, 기업의 선택형 복지 도입 확대로 인해 1위 사업자로서의 경쟁력이 부각되며 이지웰페어가 급등. 하반기 계절적 성수기 및 미디어렐 고성장세 지속 기대감에 인크로스가 10% 이상 초강세를 보였으며, 남북 이산가족 상봉 행사 및 금강산 관광 재개 기대감 등으로 금강산 아난티 리조트를 보유한 아난티가 수혜 기대감에 사흘 연속 강세를 보임. 또한, 국토교통부가 진에어의 항공운송사업 면허 유지를 결정하며 진에어를 비롯해 계열사가 동반 강세를 보였으며, 녹십자셀의 항암면역세포치료제 '이문셀-엘씨'가 FDA 희귀의약품에 지정됐다는 소식에 녹십자그룹주가 일제히 강세를 보임. 반면, 반기검토의견 결과 감사의견 거절을 통보를 받은 삼화전자가 하한가를 기록했으며, 신규장비 시장 진입 여부 불확실성으로 내년 수익성이 둔화될 것이라는 전망에 테스가 9% 이상 급락 속 신저가를 기록

종목/테마	내 용
한국항공우주(047810) ▶39,750 (+4.33%)	미 APT 교체 입찰 최종제안서 제출 소식에 강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 공군의 차세대 고등훈련기(APT) 교체 입찰 사업에 최종 제안을 제출했다는 소식에 강세. 동사는 록히드마틴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입찰에 참여 - 이번 사업은 미 공군이 노후 훈련기 T-38C 350대를 교체하는 것으로, 예산은 약 17조원 규모로 수주 성공 시 총 사업 규모는 100조원대로 확대될 전망
한진그룹주	진에어 항공 면허 유지 소식에 강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토교통부가 '항공사업법', '항공보안법'을 위반한 진에어 대해 일정기간 신규노선 허가 제한, 신규 항공기 등록 및 부정기편 운행허가 제한 등 제재 조치를 취했으나 고용불안과 소비자 불편 등을 고려해 면허 유지를 결정하며 계열사 동반 강세 - 한진(002320, +7.75%), 진에어(272450, +6.22%), 한진칼(180640, +5.59%), 대한항공(003490, +2.40%) 등 강세
녹십자그룹주	'이문셀-엘씨' 미 FDA 희귀의약품 승인 소식에 강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녹십자셀이 자체 개발한 항암면역세포치료제 '이문셀-엘씨'가 미 FDA로부터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됐다는 소식에 그룹주 동반 강세 - 녹십자셀(031390), 녹십자엠에스(142280, +18.08%), 녹십자랩셀(144510, +21.68%), 녹십자헬딩스(005250, +6.95%), 녹십자(006280, +5.59%) 등 강세
U-헬스케어 관련주	원격진료 규제 완화 기대감에 강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재인 대통령이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원격의료를 특정하며 규제완화의 필요성을 강조함에 따라 규제 완화 기대감에 강세 - 인트로메딕(150840, +18.08%), 한스바이오메드(042520, +6.92%), 차바이오텍(085660, +5.96%), 마크로젠(038290, +4.75%), 메디포스트(078160, +4.50%), 인피니트헬스케어(071200, +4.18%), 인성정보(033230, +3.61%) 등 강세

참고: 상기 종목들은 전일 시장에서 특징적인 흐름을 보인 종목들로, 추천 종목과는 별개이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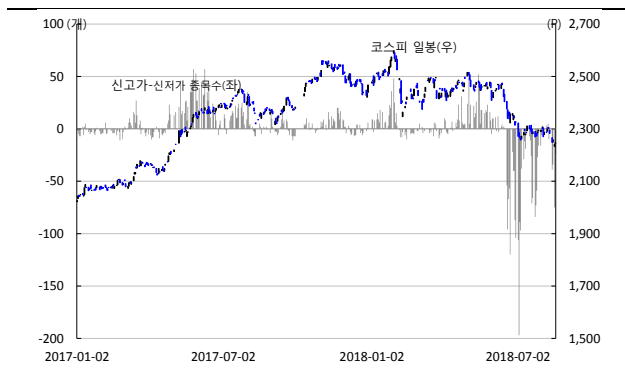
주간 국내외 증시 동향 및 52주 신고가 종목 현황

- 뉴욕증시는 중국과의 무역마찰과 터키발 금융위기 우려에 투자심리가 위축되기도 했으나 기업들의 2분기 실적 호조와 중국과의 무역협상 재개 기대감 등으로 주 후반 강세를 보임. 미국과 중국은 다음주 22~23일 미국에서 무역협상을 재개할 예정
- 지난 주말과 이번주 초 20% 이상 급등했던 터리 리라화는 5.8리라까지 하락하며 안정을 찾고 있으나 트럼프 행정부는 터키 정부가 브런슨 목사를 석방하지 않을 경우 추가 제재를 가하겠다는 압박하며 터키와의 갈등이 지속됨
- 중국 상해 증시는 미국과의 협상 재개 소식에도 불구하고 장중 2년여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불안한 모습을 보임. 국내 증시도 중국 증시 동조화 및 터키발 신흥국 금융위기 우려 등으로 투자심리가 위축되며 코스피가 장중 2,218P, 코스닥이 743P까지 급락세를 연출. 주 후반 미중 무역협상 재개 및 실적 호조, 남북 경협 기대감 등으로 반등하며 코스피는 2,250P선에 근접하며 코스닥은 770P선을 웃돌며 한 주를 마감
- 2분기 영업이익이 전년동기대비 333.4% 급증하고, 순이익이 흑자전환하는 등 실적 호조 효과에 삼아알미늄이 신고가를 경신했으며, 폭염 수해주로 부각되며 2분기 실적 호조를 기록한 빙그레도 한주내내 상승세를 보이며 신고가를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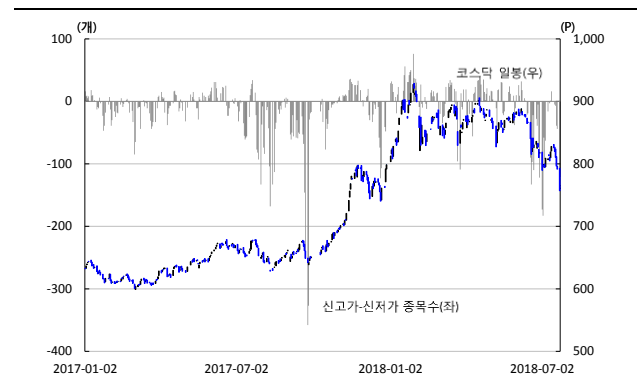
구분	섹터	업종	종목	주가(원)	등락률(%)	섹터	업종	종목	주가(원)	등락률(%)
유가증권	IT	반도체	피에스엠씨	1,240	12.3	소재	종이목재	아세아제지	38,800	2.5
	산업재	화학	효성화학	197,500	5.7	필수소비재	음식료	빙그레	68,200	9.9
코스닥	IT	반도체	하이셀	4,585	10.3	소재	철강금속	삼아알미늄	5,380	26.3

주) 상기 종목들은 8월 17일 장중 기준 52주 신고가를 경신한 종목들의 현황이며, 등락률은 주간 등락률입니다.

코스피 일봉과 신고가-신저가 종목수 추이



코스닥 일봉과 신고가-신저가 종목수 추이



단기 유망종목: 와이솔 외 5개 종목

(단위: 원, %)

종 목 (코드)	현재가 (수익률)	권입가 (권입일자)	투자 포인트
와이솔 (122990)	16,400 (-6.6)	17,550 (8/8)	<ul style="list-style-type: none"> 5G 통신 서비스의 개화로 기존 2GHz 이하에 이용됐던 표면탄성필터(SAW)에 더해 고주파를 선별하는 벌크탄성파필터(BAW)가 추가되어 동사 필터 사업부문의 수혜 전망 SK텔레콤의 IoT 전용망 모듈 납품자로 선정됨에 따라 커넥티드 수요 증가로 IoT모듈 사업부문의 수혜 및 모듈 신사업에서의 성장 기대
디지털대성 (068930)	4,580 (+1.7)	4,505 (8/2)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베트남에서의 르네상스러닝 콘텐츠 독점 판매권 확보로 4분기부터 매출 본격화 전망 2012년 비상예유 인수 이후 현금성자산을 이용한 M&A를 통해 지속적인 실적 개선 기대 브랜드파워를 기반으로 온오프라인 실적 성장으로 올해 최대 실적 전망
정상제이엘에스 (040420)	7,230 (+0.6)	7,190 (7/2)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익성이 높은 온라인 부문과 해외 교재 매출이 증가하며 지속적인 외형성장 전망 수학부문에서의 외형 확대를 통한 추가적인 성장 모멘텀 기대 배당수익률 6%에 육박하는 고배당 매력 보유
한국전자금융 (063570)	12,950 (+14.1)	11,350 (6/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으로 무인자동화기기와 무인주차장의 수요 증가 전망 ATM 관리 과점 사업자로 ATM기기 감소 추세에도 은행의 아웃소싱 비중이 낮아 향후 동사의 시장 확대 가능성 유효 국내 1위 CD VAN 사업자인 BGF핀링크를 흡수합병하고 매출이 확대됨에 따른 영업 레버리지 확대 전망
매일유업 (267980)	84,400 (-6.1)	89,900 (6/1)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수익 제품 비중 상승, 원유 손실 축소로 유가공 마진 개선 지속 중국향 분유 수출은 바닥 통과 후 점진적인 개선 진행 중 작년 2분기는 사드 영향으로 수출 분유의 기저가 낮아서 2분기 실적 개선 예상
LG이노텍 (011070)	142,500 (-1.4)	144,500 (5/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애플이 올해 8~9월부터 신모델 3종을 출시할 예정으로 매출액과 이익이 빠르게 반등할 전망 신기술 카메라모듈 탑재가 지난해 1종에서 올해는 3종으로 늘어나고 출시 시기도 빨라져 광학사업부 수혜 예상 스마트폰 내 신기술카메라모듈 채용률이 지난해 15%, 올해 59%, 내년 93%까지 상승할 전망

■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상기 유망종목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3자에게 사전에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의 금융투자분석사와 배우자는 자료 작성일 현재 본 자료와 관련해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 당사는 LG이노텍 발행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ELW(주식워런트증권)를 발행 중이며, 당해 ELW에 대한 유동성공급자(LP)입니다.

중장기 유망종목: 삼양패키징 외 5개 종목

- 신규 편입 종목

삼양패키징 (12299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판매단가 인상과 원재료 가격 하락으로 영업마진의 점진적 개선 전망 - 19년 1분기까지 기저효과가 지속되며 실적 모멘텀이 이어질 전망 - 연이은 고부가 제품 증설 및 가동에 따라 고속 성장기 진입 전망 					
	(원, 십억원, 배)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	EPS	PER
	2017. 12	356	43	28	1,966	10.3
	2018. 12F	356	40	25	1,765	10.7

- 편입 제외 종목: 테스(포트폴리오 조정으로 제외 -18.7%)

(단위: 원, %, 십억원, 배)

종 목 (코드)	현재가 (수익률)	편입가 (편입일자)	2018년 추정실적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	EPS	PER
현대백화점 (069960)	960,000 (-1.3)	97,300 (8/2)	1,880	406	287	12,705	7.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품 소비 증가로 기존점 매출액이 안정적인 증가세를 이어갈 전망 - 12월 천호점 그랜드 오픈 및 11월 무역센터점 면세점 오픈 등에 따라 이익 모멘텀 확대 전망 - 본업 호조와 신규 사업으로 이익 모멘텀을 확보하였지만 여전히 저평가 상태로 밸류에이션 매력 상존 							
하츠 (066130)	4,880 (+5.9)	4,610 (7/4)	112	7	6	495	9.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공기청정기 시장과 다른 환기청정기 시장 공략을 위해 공기청정 기능과 환기기능을 동시에 갖춘 환기청정기 제품 개발 - B2B 고객사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으며, B2C 공략을 위해서 하츠몰, 하츠앱, 소셜커머스, 하이마트로 판매 채널 확장 -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에 따라 실내 공기질 종합 관리 기업인 동사에 대한 수혜 전망 							
신대양제지 (016590)	89,000 (+14.7)	77,600 (6/28)	688	103	76	18,962	3.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분기 연결 영업이익이 265억원(+25.6% QoQ, +419% YoY)으로 전년 동기대비 5배가 넘는 이익 창출 예상 - 미국의 수출 지역인 중국과 동남 아시아 시장으로 한국 골판지 수출이 늘어날 가능성 상존 - 지배순이익이 peer그룹인 무림P&P(160억원) 대비 불과 5% 적지만 시가총액은 무림P&P의 절반에 불과한 염가 구간 							
포스코강판 (058430)	22,200 (-1.8)	22,600 (5/30)	944	25	23	3,757	5.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냉연업체들의 가격 인상에 따른 스프레드 반등 예상 - 생산라인 증설에 따라 3분기부터 컬러강판 생산능력 증가 전망 - 냉연 스프레드 사이클의 저점으로 판단되며 밸류에이션 매력 부각 가능성 상존 							
삼성전기 (009150)	137,500 (+19.0)	115,500 (4/13)	8,016	702	427	5,656	26.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LCC(적층세라믹콘덴서, 부품간 전자파 간섭을 막아주는 부품) 호황이 구조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수혜국면 지속 전망 - 삼성전자의 듀얼카메라 채택 비중이 높아지면서 영업이익 증가세 지속 전망 - 내년 갤럭시S10에 3D센싱카메라가 탑재된다면 이와 관련한 모듈 제작을 담당할 가능성이 높음 							

■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상기 유망종목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현재 삼성전기 발행주식을 기초자산으로 ELW(주식워런트증권)를 발행 중이며, 당해 ELW에 대한 유동성 공급자(LP)입니다.
- 당사는 삼양패키징 발행주식의 유가증권(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대표 주관업무를 수행한 증권사입니다.
-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3자에게 사전에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의 금융투자분석사와 배무자는 자료 작성일 현재 본 자료와 관련해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국내외 금융시장 및 수급 동향

한국시장 주요 지표

한국 주요지수	8/17(금) 종가	등락률(%)				업종 지수	8/17(금)	등락률(%)			
		1D	5D	1M	YTD			1D	5D	1M	YTD
KOSPI	2,247.05	0.28	(1.57)	(2.21)	(8.93)	KRX 업종 지수					
KOSPI200	288.57	0.11	(1.73)	(2.80)	(11.14)	자동차	1,486.32	(0.06)	(0.15)	1.51	(14.58)
대형주	2,152.48	0.15	(1.82)	(2.51)	(11.02)	반도체	2,324.49	(0.77)	(4.18)	(10.60)	(16.50)
중형주	2,642.36	0.70	(0.52)	(0.89)	(3.39)	헬스케어	3,849.64	2.93	(1.60)	(6.52)	0.11
소형주	2,153.62	1.10	(0.12)	(0.41)	5.91	은행	837.12	0.47	(0.57)	(3.97)	(10.65)
KOSDAQ	772.30	1.46	(1.59)	(5.78)	(3.27)	에너지화학	2,542.26	0.16	0.37	4.90	(8.03)
KOSDAQ150	1,276.40	1.92	(1.08)	(7.15)	(9.72)	철강	1,649.34	0.20	(3.41)	1.25	(19.66)
						방송통신	1,050.99	(0.47)	1.25	5.37	2.39
						건설	648.11	(0.56)	(1.21)	4.09	15.55
거래량	KOSPI	230	284	274	433	증권	625.32	1.60	(1.76)	(7.29)	(12.24)
(백만 주, 기간 평균)	KOSDAQ	582	577	574	905	기계장비	553.19	0.92	(0.69)	7.15	3.36
거래대금	KOSPI	4,417	5,331	5,213	7,084	보험	1,642.77	0.00	(2.54)	2.23	(15.15)
(십억 원, 기간 평균)	KOSDAQ	3,447	3,597	3,452	5,694	운송	550.04	1.24	(0.73)	(1.13)	(5.32)
						유틸리티	1,202.84	(0.19)	(1.58)	(4.93)	2.14
					(단위: %, bp)						
금리	8/17(금)	1D	5D	1M	YTD	업종 지수	8/17(금)	1D	5D	1M	YTD
국고채 3년물	2.05	(1.50)	(1.00)	(4.20)	(8.90)	KOSDAQ150					
국고채 5년물	2.26	(2.30)	(2.50)	(6.40)	(8.50)	기술주	1,524.47	2.01	(1.55)	(9.06)	(11.13)
국고채 10년물	2.47	(2.50)	(4.70)	(7.30)	0.30	소재	1,362.31	(0.91)	0.43	(0.11)	(13.25)
회사채 3년(AAA-)	2.44	(1.80)	(2.50)	(14.00)	(10.70)	산업재	254.06	1.24	0.63	1.78	(18.79)
회사채 3년(BBB-)	8.45	(1.50)	(2.20)	(13.90)	(33.90)	필수소비재	750.56	0.99	(1.08)	(12.79)	(26.54)
					(단위: 원, %)	자용소비재	1,343.56	2.01	(0.67)	(0.38)	14.92
외환	8/17(금)	1D	5D	1M	YTD	정보기술	613.70	0.16	(3.29)	(8.69)	(19.12)
원/달러	1124.9	0.45	0.36	(0.07)	(5.11)	생명기술	4,181.02	3.36	(1.08)	(10.18)	(11.25)
원/100엔	1015.5	0.23	0.30	(1.80)	(6.75)	문화기술	2,353.96	0.02	2.78	(0.75)	5.27
원/유로	1279.8	0.40	1.08	2.94	(0.29)						
원/위안	163.5	0.14	0.87	2.60	0.34						

주체별 당일 순매수 동향

(단위: 십억원)

구 분		개 인	외국인	기관계	(금융투자)	(보험)	(투신)	(사모)	(은행)	(연기금 등)	(국가, 지자체)	기 타
유 가 증 권	매수	2,349	1,250	1,059	150	78	120	123	7	153	171	96
	매도	2,258	1,146	804	303	71	132	110	8	165	270	37
	순매수	92	104	(255)	(153)	7	(11)	13	(1)	(12)	(99)	60
	2018년 8월 누계	514	24	(988)	(103)	(20)	(106)	95	2	(674)	(182)	450
	2018년 누계	7,780	(3,384)	(5,464)	(2,871)	(601)	242	(764)	(201)	(714)	(555)	1,068
코 스 닥	매수	2,838	397	175	45	13	44	58	2	21	20	18
	매도	2,929	330	202	36	7	40	50	1	25	17	21
	순매수	(90)	67	27	9	5	4	9	1	(4)	3	(4)
	2018년 8월 누계	381	(65)	(246)	(128)	(10)	(30)	(65)	(2)	(14)	3	(70)
	2018년 누계	3,269	(616)	(711)	210	98	247	(1,088)	(123)	(149)	93	(1,942)

KOSPI 기관/외인 당일 매매 상위 업종

(단위: 억원)

	기관				외국인			
	순매수		순매도		순매수		순매도	
업종	건강관리	241	반도체	(1,137)	건강관리	372	IT가전	(274)
	에너지	150	통신서비스	(328)	통신서비스	287	미디어, 교육	(141)
	호텔, 레저서비스	129	자동차	(200)	화장품, 의류, 완구	251	IT하드웨어	(135)
	디스플레이	91	은행	(197)	자동차	217	디스플레이	(83)
	증권	31	상사, 자본재	(196)	소프트웨어	189	운송	(61)
종목	삼성바이오로직스	174	삼성전자	(671)	삼성전자	194	SK하이닉스	(274)
	KODEX 코스닥 150 레버리지	163	SK하이닉스	(360)	LG유플러스	174	LG전자	(169)
	OCI	138	LG유플러스	(171)	S-Oil	152	CJ CGV	(161)
	호텔신라	102	SK텔레콤	(121)	넷마블	122	삼화콘덴서	(111)
	LG디스플레이	92	진에어	(119)	셀트리온	114	LG디스플레이	(86)
	S-Oil	90	아모레퍼시픽	(112)	SK텔레콤	98	진에어	(74)
	카카오	84	KODEX 레버리지	(111)	현대차	97	KODEX 200	(73)
	셀트리온	83	LG화학	(110)	한미약품	89	KODEX 코스닥150선물인버스	(67)
	SK이노베이션	72	삼성전기	(99)	휠라코리아	87	일진머티리얼즈	(67)
	신세계인터내셔널	70	현대차	(87)	현대모비스	74	롯데케미칼	(62)

KOSDAQ 기관/외인 당일 매매 상위 업종 및 종목

(단위: 억원)

	기관				외국인			
	순매수		순매도		순매수		순매도	
업종	미디어, 교육	166	반도체	(68)	건강관리	684	반도체	(138)
	건강관리	52	조선	(28)	조선	234	비철, 목재 등	(56)
	호텔, 레저서비스	47	필수소비재	(18)	필수소비재	75	디스플레이	(50)
	소프트웨어	40	자동차	(6)	호텔, 레저서비스	41	미디어, 교육	(47)
	소매(유통)	17	화학	(6)	화장품, 의류, 완구	32	소매(유통)	(45)
종목	스튜디오드래곤	56	메디톡스	(40)	신라젠	257	테스	(69)
	셀트리온헬스케어	52	테스	(37)	에이치엘비	227	CJ ENM	(56)
	에스엠	50	위닉스	(30)	바이로메드	65	포스코캠텍	(52)
	아프리카TV	45	에이치엘비	(27)	네이처셀	36	와이지엔터테인먼트	(39)
	JYP Ent.	40	매일유업	(23)	펄어비스	33	대주전자재료	(36)
	파라다이스	36	원익IPS	(19)	메디톡스	32	카카오M	(30)
	카카오M	32	에스에프에이	(17)	JYP Ent.	31	컴투스	(27)
	제넥신	25	중앙백신	(16)	파라다이스	30	보성파워텍	(24)
	컴투스	22	와이지엔터테인먼트	(15)	셀트리온제약	26	아프리카TV	(24)
	엘앤에프	19	휴젤	(13)	JW신약	21	오르비텍	(23)

시가총액 상위 종목 등락률

KOSPI (단위: 십억원, 원, %)

종목명	시가총액	증가	1D	YTD
삼성전자	283,092	44,100	(0.34)	(13.46)
SK하이닉스	54,236	74,500	(0.27)	(2.61)
셀트리온	32,979	263,000	1.74	18.95
삼성바이오로직스	30,304	458,000	4.09	23.45
POSCO	27,289	313,000	(0.16)	(5.86)
현대차	27,029	126,500	0.00	(18.91)
LG화학	25,802	365,500	(0.54)	(9.75)
NAVER	24,887	755,000	0.67	(13.22)
삼성물산	23,142	122,000	0.41	(3.17)
현대모비스	22,584	232,000	(0.22)	(11.79)

KOSDAQ (단위: 십억원, 원, %)

종목명	시가총액	증가	1D	YTD
셀트리온헬스케어	12,661	90,100	0.90	(17.04)
CJ ENM	5,348	243,900	(2.13)	5.58
신라젠	4,286	61,500	6.96	(34.22)
나노스	3,755	7,650	5.08	229.03
메디톡스	3,616	639,300	1.16	31.84
에이치엘비	3,538	92,500	11.45	139.33
바이로메드	3,214	201,400	3.98	23.33
펄어비스	3,097	240,500	1.14	(2.87)
스튜디오드래곤	2,947	105,100	(0.19)	61.69
포스코캠텍	2,871	48,600	(2.51)	22.11

Global Asset Monitor

글로벌 주식		(단위: %)				
구분	지역/국가	종가	1D	5D	1M	YTD
지역	MSCI 세계	511.50	0.63	(0.80)	(0.82)	(0.30)
	MSCI 선진국	2,131.05	0.73	(0.41)	(0.33)	1.31
	MSCI 신흥국	1,021.57	(0.18)	(3.84)	(4.61)	(11.82)
DM	S&P500	2,840.69	0.79	(0.45)	1.11	6.25
	Dow Jones	25,558.73	1.58	0.19	1.75	3.40
	Nasdaq	7,806.52	0.42	(1.08)	(0.62)	13.08
	Russell 2000	1,685.75	0.90	(0.30)	(0.09)	9.78
	영국 FTSE 100	7,567.05	0.14	(1.30)	(0.78)	(1.57)
	프랑스 CAC	5,360.94	0.22	(0.99)	(1.14)	0.91
	독일 DAX 30	12,226.64	(0.09)	(1.59)	(3.43)	(5.35)
	스페인 IBEX	9,444.80	0.18	(1.64)	(2.83)	(5.96)
	일본 니케이	22,270.38	0.35	(0.12)	(1.88)	(2.17)
	홍콩恒生	27,213.41	0.42	(4.07)	(3.44)	(9.04)
EM	코스피	2,247.05	0.28	(2.46)	(2.21)	(8.93)
	코스닥	772.30	1.46	(2.18)	(5.78)	(3.27)
	중국 상해종합	2,668.97	(1.34)	(4.52)	(4.62)	(19.30)
	홍콩 H지수	10,513.83	0.33	(3.92)	(0.74)	(10.21)
	인도 Sensex	37,934.88	0.72	(0.24)	3.87	11.39
	베트남 VN	968.88	0.48	0.04	5.17	(1.56)
	인도네시아 JCI	5,783.80	(0.56)	(4.64)	(1.33)	(9.00)
	러시아 RTS	1,065.41	(0.10)	0.80	(8.56)	(7.71)
	브라질 Bovespa	76,818.72	(0.34)	(2.47)	(1.68)	0.55
	멕시코 Mexbol	48,059.06	(1.02)	(2.41)	(1.33)	(2.62)
글로벌 업종	에너지	174.33	0.20	(2.82)	(2.57)	(0.08)
	소재	194.13	0.09	(3.20)	(4.36)	(10.04)
	산업재	267.84	0.06	(1.35)	(1.15)	(8.35)
	경기소비재	247.88	0.05	(0.99)	(2.76)	(6.55)
	필수소비재	301.07	0.06	(0.06)	(0.50)	0.50
	헬스케어	588.74	0.05	0.59	2.68	11.47
	금융	169.73	0.15	(1.06)	(0.42)	(6.76)
	IT	403.69	0.00	(0.36)	(0.03)	11.09
	통신서비스	167.94	0.17	0.70	1.84	(5.22)
	유틸리티	166.50	0.16	0.40	(0.87)	(2.44)

글로벌 환율		(단위: %)				
구분	지수/국가	종가	1D	5D	1M	YTD
지수	달러 인덱스	96.38	(0.28)	0.02	1.47	4.62
	무역가중 달러 인덱스	125.58	0.78	1.10	1.71	5.46
미주	브라질	3.90	0.02	(2.66)	(1.13)	(15.17)
	멕시코	19.02	(0.21)	(0.60)	(0.71)	3.34
아시아	한국	1,124.93	0.45	0.36	(0.07)	(5.11)
	일본	110.73	0.15	0.09	1.94	1.77
	중국	6.88	0.13	(0.43)	(2.47)	(5.37)
	대만	1.37	(0.29)	0.25	1.46	7.20
	인도	70.16	(0.38)	(2.10)	(2.26)	(8.96)
유럽	유로존	1.14	0.26	(0.05)	(2.18)	(4.98)
	영국	1.27	0.06	(0.27)	(2.99)	(5.85)
	러시아	66.91	(0.12)	1.23	(6.40)	(13.78)

주: 달러 대비

글로벌 채권(10Y)		(단위: bp)				
지역	국가	종가	1D	5D	1M	YTD
미주	미국	2.86	(0.72)	(1.45)	(0.13)	45.33
	캐나다	2.26	(1.30)	(7.80)	11.80	21.10
	브라질(USD)	11.74	10.10	16.40	25.90	147.90
유럽	멕시코	7.90	(0.30)	14.70	15.60	24.70
	독일	0.31	(1.50)	(1.20)	(4.10)	(12.20)
	영국	1.22	(2.20)	(2.40)	(4.00)	2.80
아시아	프랑스	0.67	(1.20)	(0.50)	3.70	(12.00)
	이탈리아	3.11	(0.80)	11.60	64.10	109.30
	러시아	5.05	(0.60)	(3.80)	52.60	118.40
아시아	한국	2.47	(2.50)	(4.70)	(7.30)	0.30
	일본	0.10	(0.40)	(0.30)	5.50	5.00
	중국	3.65	4.40	9.70	16.90	(24.80)
	호주	2.55	(1.10)	(4.40)	(11.20)	(8.50)
	인도	7.86	4.30	10.70	6.00	53.50

원자재		(단위: %, USD/oz, bu, MT)				
구분	지수/상품	종가	1D	5D	1M	YTD
지수	S&P 원자재 지수	449.37	0.95	(1.92)	(0.49)	1.57
	LMEX 지수	2,887.60	2.41	(3.98)	(2.62)	(15.54)
	CRB 지수	413.84	(0.08)	(2.42)	(4.41)	(4.28)
에너지	원유(WTI)	65.67	0.32	(2.90)	(3.54)	8.69
	원유(Brent)	71.72	0.41	(1.50)	(0.61)	7.25
	천연가스	2.93	0.58	(0.65)	6.75	(0.95)
금속	금	1,176.70	0.04	(2.84)	(4.12)	(10.13)
	은	14.70	(0.12)	(3.92)	(5.47)	(14.29)
	구리	5,938.00	2.36	(4.61)	(4.10)	(18.06)
	아연	2,392.00	4.00	(8.51)	(3.31)	(27.93)
	알루미늄	2,048.00	1.14	(1.44)	(0.34)	(9.70)
농산물	S&P 농산물 지수	294.39	1.61	0.64	5.49	4.34
	옥수수	378.00	(0.46)	1.68	5.07	(1.56)
	밀	556.75	(0.93)	(2.24)	8.69	15.51
	대두	892.50	(0.50)	3.57	4.36	(8.53)

변동성		(단위: %)				
구분	지수	종가	1D	5D	1M	YTD
미국	VIX	13.15	(2.23)	(0.08)	9.04	19.11
유럽	VSTOXX	15.85	(2.55)	4.88	26.23	17.30
한국	VKOSPI	13.79	(3.70)	20.54	(0.07)	14.34

한 눈에 보는 매크로 일정

월	화	수	목	금
13	14	15	16	17
	<p>韓> 실적발표: 농심, 휴온스, 팬오션, 삼성증권, 엔씨소프트</p> <p>유럽> 2Q GDP SA YoY (2.2%, 2.1%, 2.1%) 8월 ZEW 서베이 (-11.1, n/a, -18.7)</p> <p>中> 7월 광공업생산 YoY (6.0%, 6.3%, 6.0%)</p> <p>日> 7월 광공업생산 MoM (-1.8%, n/a, -2.1%)</p>	<p>韓> 휴장(광복절)</p> <p>美> MBA 주택융자 신청지수 (-2.0%, n/a, -3.0%) 7월 소매판매 추정 MoM (0.5%, 0.1%, 0.5%) 7월 광공업생산 MoM (0.1%, 0.3%, 0.6%)</p>	<p>韓> 실적발표: 금호타이어</p> <p>美> 실적발표: Walmart, Cisco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천건) (n/a, 215, 213) 7월 주택착공건수(천건) (n/a, 1273, 1173)</p>	<p>韓> 7월 실업률 (3.8%, 3.7%, 3.7%)</p> <p>美> 실적발표: Nvidia 7월 선행지수 (n/a, 0.4%, 0.5%) 8월 미시간대 소비자신뢰 (n/a, 97.9, 97.9)</p> <p>유럽> 7월 CPI YoY (n/a, 2.1%, 2.0%)</p>
20	21	22	23	24
		<p>美> FOMC 회의록 발표 미중 무역분쟁 협상(~23일) MBA 주택융자 신청지수 (n/a, n/a, -2.0%) 7월 기준주택매매(백만건) (n/a, 5.43, 5.38)</p> <p>日> 6월 전체산업 활동지수 MoM (n/a, -0.8%, 0.1%)</p>	<p>美> 잭슨홀 미팅(~25일)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천건) (n/a, n/a, n/a) 8월 마켓 제조업 PMI (n/a, 55.0, 55.3) 7월 신규주택매매(천건) (n/a, 650, 631)</p> <p>유럽> 8월 마켓 유로존 제조업 PMI (n/a, 55.3, 55.1) 8월 소비자기대지수 (n/a, -0.6, -0.6)</p>	<p>韓> 7월 실업률 (n/a, n/a, 3.7%)</p> <p>美> 7월 내구재주문 (n/a, 0.8%, 0.8%)</p> <p>日> 7월 전국 CPI YoY (n/a, 1.0%, 0.7%)</p>
27	28	29	30	31
	<p>美> 7월 도매재고 MoM (n/a, n/a, 0.1%) 8월 컨퍼런스보드 소비자기대 (n/a, 127.0, 127.4)</p> <p>유럽> 7월 M3 통화공급 YoY (n/a, n/a, 4.4%)</p>	<p>美> MBA 주택융자 신청지수 (n/a, n/a, n/a) 2Q GDP 연간화 QoQ (n/a, 4.0%, 4.1%)</p>	<p>美>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천건) (n/a, n/a, n/a) 7월 개인소득 (n/a, n/a, 0.4%)</p> <p>유럽> 8월 소비자기대지수 (n/a, n/a, n/a)</p>	<p>韓> 금융통화위원회 (n/a, n/a, 1.50%)</p> <p>美> 8월 미시간대 소비자신뢰 (n/a, n/a, n/a)</p> <p>中> 8월 제조업 PMI (n/a, n/a, 51.2)</p> <p>日> 7월 실업률 (n/a, n/a, 2.4%) 7월 유효구인배율 (n/a, n/a, 1.62) 7월 광공업생산 MoM (n/a, n/a, n/a)</p>

주: 괄호안은(발표치, 블룸버그 예상치, 이전치) 순이며 예상치는 변동 가능
 발표일자는 한국시간 기준 (단, 오전 6시 이전에 발표되는 지표는 전일 기입)
 실적발표일은 Bloomberg, 기업 공식 기준으로 작성 (변동 가능, *표시는 한국시간 당일 아침)